

청년 일자리에 모든 것 '희망대로'

전북도, 청년 취·창업 57개 사업에 1727억 투입

전북도는 구직 청년의 맞춤형 일 경험 제공과 취업역량강화 및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희망대로(希望大路)'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는 사업 계획 수립, 공고 및 참여자 모집 등을 순조롭게 추진 중으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은 기업이 상시근로 인원 외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도록 촉진시키고, 청년은 현장 실무 체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 및 기업 인력난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중이며, 연중 수시 모집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 선정 시 1인당 월 50~65만원씩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9개월) 최대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2년간 근무 청년에게는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격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전북형 공제에 가입 신청 시 지원하며 전북도, 14개 시군 및 위탁운영기관에서 지난 1월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모집도 병행하고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전북도 및 시군에서 1인당 480만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청년에게는 고용부

에서 2년형 1,600만원이나 3년형 3,000만원을 지원(자부담포함)한다. 직무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진로 선택 지원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인턴사업 참여 만족도(97.7%)도 높아 올해는 2개월로 연장하고 참여 인원도 회당 1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참여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공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은행 등 도내 공공기관, 출연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1~2월)에는 32개 기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사업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청년수요에 적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

에 맞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 발굴·제공하여 청년취업으로 연계하고,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추진한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2018년에는 35건(국비 113억, 전 국29억)이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133건(국비 113억, 전 국19억)이 선정된 후 최종 115건으로 변경 추진 예정이며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함께 사업공고,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중에 있으며 3개 유형에 1,2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 청년희망대로(希望大路)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우리도의 기반산업을 이끌어가는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 중심의 전부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축구종합센터 장수에 유치하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순창서 건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43차 월례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대책은 기존대책을 답습하거나 효과 또한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전방위적 대응과 노후화된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수군이 제안

한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해 훈련 여건과 영호남을 잇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수군이 최적지라며 장수군 유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장수군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의 상당수가 군 유지이어서 타지역보다 유리한 점이 많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축구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장수군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박병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장수군의 뛰어난 훈련환경과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축구종합센터는 장수군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송호철 기자



심장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한 Heart Saver(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 수여식이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Heart Saver (하트세이버)들이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장을 구한 24명' 하트세이버 선정

전북소방본부는 2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심장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심장지 및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으로 귀중한 인명을 살린 구급대원 또는 일반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병원 도착 전 환자가 삼전도 및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생존해야 받을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

년 3~4회 행사를 열어 지금까지 350여명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전달했다. 이번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는 24명(도민 7·소방공무원 17)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사례로 보면 익산역에서 발생한 심장지 환자 생명을 소생시킨 역무원 장과 동전주 우체국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장지가 발생한 도민을 살

린 예비소방관 등 7명의 일반인 하트세이버가 탄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하트세이버는 무엇보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널리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청원 글로벌 벤치마킹 대폭 개선

전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운영하는 '청원글로벌 벤치마킹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벤치마킹 연수팀 25개팀 100명(정책과제 12팀 48명, 자율과제 13팀 52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대외협력국장)는 외부인사 3명, 공무원 노조 추천 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견학 체험하여 도정에 연계 활용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수대상자는 실무 공무원과 해외 연수 미경험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동안 외유성 논란과 부실한 보고서 등으로 종종 언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감안해 올해에는 내실있는 연수 추진을 위해 방문국가 제한과 관련 기관 사업현장 방문 의무화는 물론 추진결과 이행상황 점검과 정책제안서 제출 도중에 연계 활용도록 사후관리를 중점 강화했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는 이전의 자유로운 단순한 해외연수에서 탈피하여 업무 발굴과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산업, 농업, 관광, 문화, 선진 시민의식 등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를 도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내일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사전투표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전주시라선거구(서신동))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3월 29일, 30일 양일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

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하러 갈 때에는 미리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나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하여 줄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 공고 제2019-338호

무주 군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규정에 따라 입안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8번지 일원의 무주 군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건 명 : 무주 군관리계획(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 가. 위 치 :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8번지 일원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복합형) : 7만4,149㎡
 - 당초 : 7만4,149㎡(주거형 4만7,471㎡, 산업유통형 2만6,678㎡)
 - 변경 : 7만4,149㎡(주거형 4만8,508㎡, 산업유통형 2만5,641㎡)
 - 다. 지구단위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무주군청 건설과, 농축산유통과
5. 기타사항 :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를 무주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건설과 063)320-24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8일 무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